

## 26. 양진암에서 진실한 삶을 찾다.

학문에 전념하고자 벼슬을 사퇴하고 낙향해 양진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저술을 하며 제자들을 양성하다.



\*양진암이 있던 자리를 알려주는 표석

퇴계는 43살에 주자대전을 만나면서 학문에 본격적으로 뜻을 두게 된다.



그러나 45살엔 을사사화를 겪으며 무고로 파직도 당했다.



46세엔 늘 곁에 있던 권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.



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이다. 일희일비 하지 않으며 참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?



건지산 기슭 동암 곁에 참된 진리를 길러나간다는 뜻으로 양진암養眞庵을 지었다.



집 앞에 개울이 흘렀는데 토계라 불렀다.

토계라니 내가 토끼란 말인가? 토계보다는 퇴계가 낫겠다.



물러날 퇴退, 시내 계溪, 고향 시냇가에 물러나서 산다는 뜻이니 좋구나. 내 호로 삼아야겠다.

退溪



그 뒤에 다시 임금이 홍문관 응교를 제수하니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.

공, 호를 퇴계로 했는데도 다시 올라가야 하다니...

